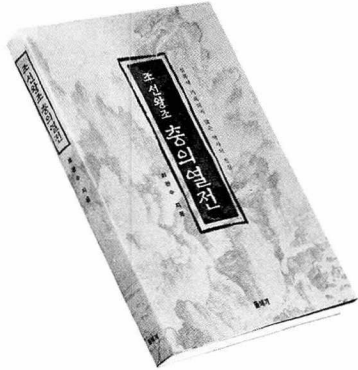


## 역사 속 인물들 오늘에 맥 잇기

《조선왕조 총의열전》 펴낸 최완수씨



문화를 이룩한 민족은 역사를 남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된 역사서 《사기(史記)》를 가졌고, 우리나라는 《삼국사기》와 《실록》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우리 역사의 영광은 끊어졌다. 최완수 실장(56,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은 《조선왕조 총의열전》(돌베개)을 통해 그 맥 잇기를 시도한다.

“우리에게는 정사(正史)가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편찬체로 정리한 《조선사》 속에 ‘조선왕조사’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유교적 사관으로 일관한 정사를 만들기 위해 먼저 주요 인물들의 전기를 정리했다. 첫 인물의 선택은 역사서술의 방향과 그 관점을 드러내는 일, 그 책임있는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절제 김종서다. 유교적 윤리기준인 충(忠)과 의(義)로 본다면 김종서는 조선 역사를 서술하는 데 기준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최고 통치권자가 한 신하에게 변방 수호를 맡기고 완전히 군사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여간한 믿음이 아니고는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김종서는 정의와 불의가 완전히 뒤바뀐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과정에서 어린 왕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 뒤를 이어 매죽헌 성삼문, 취금헌 박팽년, 백옥헌 이개 등 사육신을 올렸다. 이같은 인물선택에는 TV 사극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 변조에 대한 경계도 담겨 있다.

“이긴 자들이 편찬한 《문종실록》과 《노산군일기》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고, 우리 역사를 정쟁의 드라마로만 파악한 결과지요.”

최실장이 ‘진경시대’라 부르는 숙종대까지 역사는 계속 오도됐고, 멸문지화된 충의지사들의 기록은 찾기 힘들어졌다. 실록과 《용재총화》, 《성근보선생집》, 《박선생유고》, 《보한계집》 등 관련 자료를 뒤지고, 반역자들의 기록에서 행간을 읽어 역사적 진실을 복원시키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기록에서 발췌한 부분은 그대로 옮겨쓰면 한문이 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흥미를 끌기 위한 어떤 장치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재미있고 쉽게 쓰기 위해서는 각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사실을 왜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히 원칙을 지켰다. 더구나 역사를 제대로 소화하는 기초적인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정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겁니다. 다음 책은 무오사화에 돌아간 영남사람 김종직 일파를 다루려고 합니다.”

간신전으로 역설적으로 세상을 경계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다. 최완수 실장은 안 키워본 화분이 없다.

지금은 선인장을 기르고 있는데, 2층 연구실까지 계단을 따라 갖가지 화분이 이어진다.

아침이면 새 모이 주러

나오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최완수 실장은 스스로 ‘살리는’ 제주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의 손에서 우리 역사도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 — 이현주 기자

## 생명을 향한 농사꾼의 사랑 노래

《하느님, 개구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펴낸 강문필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절, 농사꾼 강문필(45)씨는 친구들과 함께 개구리 파티를 벌였다. 껌질을 훌랑 벗긴 개구리에 밀가루 옷을 입혀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겼다. 튀김접시 주변에 둘러앉은 그와 친구들은 킁킁 웃으며, “하느님, 개구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식전 감사기도를 올렸다.

지금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개구리를 잡아먹는 짓을 혐오한다. 자연과 더불어 농사를 지으며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런 대안없이 유기농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도 어언 열여덟 해가 지났다. 소걸음 따라가듯 고집스럽게 노력한 끝에 어느덧 유기농법의 대가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지난 시절은 차라리 고통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유기농법을 고집하는 동안 못내 삭일 수 없던 감정을 우려내기 위해 글을 썼고,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하느님, 개구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늘푸른소나무)로 묶어냈다.

“저도 일반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좀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남보다 배나 되는 농약과 비료를 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하고 말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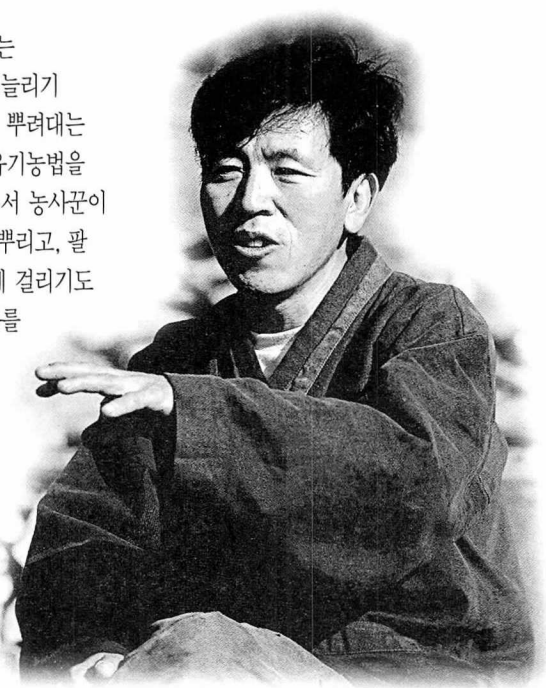
실패의 뒤안길을 더듬으며 그는 대안찾기에 고심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약과 비료를 무차별로 뿌려대는 농사의 한계성을 확인한 그는 유기농법을 생각했다. 더욱 신앙적인 관점에서 농사꾼이 자신이 먹을 것을 농약을 적게 뿌리고, 팔 것은 마구 뿌려대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시작한 그는 또다른 패배의 쓰라림을 겪어야 했다. 3년 정도는 자급자족도 어려울 정도로 수확량이 형편없었다.

“유기농법으로 지은 농사가 영망이 되었으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애들은 일기장에 아버지가 유별난

짓을 해서 못살게 됐다고 썼더군요. 죽고 싶었습니다.”

가족간의 불화도 생겼다. 여덟 해가 넘도록 그는 혼자서 생활해야 했다. 고통스런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확량이 조금씩 늘어났고, 자신감을 얻은 그는 유기농법을 고수했다. 한편, 유기농법을 하는 동안 그는 생명의 존귀함을 새삼 깨달았다. 들녘에서 살아가는 하찮은 생물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다.

생명을 향한 무식한 농사꾼의 사랑 노래는 죽을 때까지 울려 퍼진다. ‘폴무학교’를 다닌 자식과 지인에게 남긴 <미리 쓰는 유서>를 통해 흙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밝혔다. “마지막 몸뚱이 자연에게 봉사할 기회가 생겼으니 슬퍼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기뻐할 일이고, … 알몸으로 묻히게 해주시요” 라고. 이제는 누구보다 현명한 농사꾼이 된 강문필씨는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안빈낙도의 삶을 즐길 것이다. — 오완진 기자



## 가부장적 봉건체제에 맞선 페미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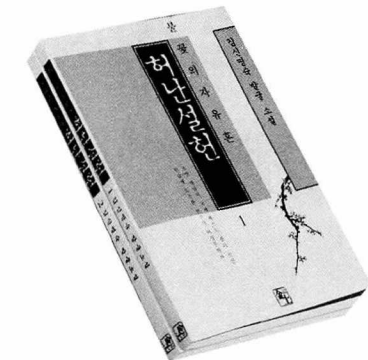
《불꽃의 자유혼 허난설헌》  
펴낸 김신명숙씨

신사임당, 황진이, 허난설헌. 이들은 조선시대에 명성을 남긴 여성으로서 각기 다른 여성상을 상징한다. 현모양처와 기생 그리고 저항정신의 전형이 바로 그것이다. 신사임당과 황진이와 성녀와 창녀의 이미지로 남성들에게 여전히 주목받고 있지만, 허난설헌은 아직도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자신에게 강요된 굴종과 억압을 감내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으로 살고자 했던 불온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김신명숙씨(39)가 펴낸 《불꽃의 자유혼 허난설헌》(금토)은 사대부가의 여성으로서 순종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행했던 조선시대 한 천재적 시인의 빛을 불러들인다. 당대 최고의 사대부에서 빼어난 시재(詩才)로 경탄을 자아냈지만 고부간의 불화와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으로 끝내 고독과 절망 속에서 스물일곱의 나이로 스러져간 허난설헌의 삶이 애절한 정조로 그려진다.

“허난설헌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금기시됐던 시작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자유롭게 자기자신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소략하게 남아 있는 그녀의 작품과 단편적인 기록만으로도 그녀가 탁월한 문인이자 당당한 여인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대인들에게 부도덕하고 방탕하다고 비난받았고



역사의 배후로 사라졌다. 현모양처라는 당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파격과 저항을 통해 유교적 여성억압에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허난설헌을 복원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난설헌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허균의 기록, 야담과 야사 등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죠. 그만큼 기존의 역사서술은 남성 이데올로기가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료의 부족은 상상력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무기로 삼은 페미니스트다. 94년 독일 여성들의 삶을 관찰하게 되면서부터 여성문제를 자기화했다. 10년 동안 근무하던 동아일보 기자생활을 마감하고 독일에서 유학할 때 우리와는 너무 달리 당당한 서양 여성들의 삶에 충격을 받았다. 이듬해 서양여성에 대한 관찰과 취재를 토대로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동아일보출판국)를 출간했다. 현재는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의 편집위원이자 칼럼니스트로 자기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야만적인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것도 힘있는 남성들만을 위한 사회죠. 약자가 가차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여성들만이 억압받는 것은 아닙니다. 힘있는 남성은 또 하나의 여성일 수 있어요.”

“글로써 우리사회에 페미니즘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허난설헌의 불행과 절망이 우리 세대의 여성들에게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충전돼 있었다.

— 박천홍 기자

## 한 직장인이 그리는 '회사농담'

《천하무적 홍대리》 펴낸 홍운표씨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얼마 전, 홍대리는 한 외국회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이제 과장이 됐으니 천하무적을 자랑하던 홍대리의 시대도 끝난 게 아닐까? 하지만 장난기 어린 홍운표씨(32, 코제마코리아)의 웃음을 바라보노라면, 일요일에 출근해 부장 책상에 누워보는 홍대리의 ‘뽀뽀함’은 영원할 거란 생각도 든다.

홍운표씨는 어릴 적 소원과는 무관하게 화공학을 전공한 뒤 무역상사에 취업했다. 소원은 서강대 재학시절, 학교신문에 4컷짜리 만화를 그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길이 보였다. 아내 따라 간 신문사 문화센터에서 만화과정을 발견한 것. 하지만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도 쫓아간다. 홍운표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내 전산망에 졸업작품의 후속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더니 만화잡지 ‘미스터 블루’에서 연재 제의가 오더군요.”

한겨레 출판만화학교 졸업작품이자 그의 첫 작품인 ‘카운터다운’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온 사원들이 한 목소리로 카운터다운을 시작한다. “3, 2, 1...” 드디어 퇴근시간이다. 처음에는 홍대리의 캐릭터도 잘 살지 않고 내용이 간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도가 높아져 마침내는 ‘노을 바라보며...’ 같은 인기작도 그려냈다. 결재서류를 검토하는 호랑이부장과 나란히 부장 책상에 걸터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홍대리의 모습은 노을이 지는 줄도 모르고 책상에 코 박고 지내던 직장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샀다고.

“IMF 관리체제로 접어들면서 직장 분위기도 많이 바뀌게 됐죠. 평생 직장의 신화는 깨졌고 동료들보다 더 잘해야만 잘리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홍대리도 조금씩 바뀌어야 할 테죠.”

박재동씨의 말처럼 ‘샐러리맨의 애환을 손톱 밑까지’ 그릴 수 있는 만화가는 흔하지 않다. 미국의 유명한 샐러리맨



만화 《달버트》가 전세계적으로 공감받는 까닭도 만화가 스코트 아담스가 샐러리맨 출신이기 때문이다. 홍운표씨는 미국만화 《달버트》의 살벌한 조직 혁신의 분위기도, 일본만화 《시마과장》의 인맥으로 얽힌 파벌간의 경쟁도 아닌 우리만의 전통적인 직장문화와 새로운 변화 사이의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만화 속에서 홍대리가 40대 부장의 애환까지 감싸안으며 동류의식을 느끼는 일이 찾아지는 까닭도 전통적 직장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이다.

“그림은 주로 일요일에 그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직장인이니까, 소재야 늘 넘쳐나죠. 하지만 직장 다니면서 만화를 그린다든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만화만 그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홍운표씨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책을 낸 만화가가 된 지금도 그는 업무시간에 ‘뽀뽀이치고’ 만화방에 가곤 한다. “이런 일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회사 생활합니까?” 정말 그렇다. — 김연수 기자

